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활동

—농촌 보건소 결핵관리에 뛰어든 이방인의 애환—

김 대 규 /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케네디대통령이 주창한 뉴 프론티어 정신의 기치아래 1967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 농촌에서 된장, 김치를 먹고, 냄새나는 뒷간에도 익숙해지면서 결핵관리사업에 헌신한 미국 청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케네디대통령이 창설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선거 때 슬로건으로 내걸어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뉴 프론티어 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미국내에서 모집한 청년봉사자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교육, 기술, 보건분야에 종사케함으로써 미국의 이념과 꿈을 나누어 주고, 국가간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그들 나라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미국청년들에게는 인류봉사와 개척정신을 심어줄 목적으로 창설하였다.

단원은 대부분이 대학졸업생 또는 재학 중의 남녀였으며 1961년 8월 30일 52명의 미국 젊은이가 아프리카 가나행 프

로펠러기에 몸을 실은 이래 35년간 14만여명의 미국 평화봉사단원이 세계 1백여 개국에 파견되어 교육, 농수축산업, 지역개발, 공중보건의료, 직업 및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현지인과 의식주를 같이하면서 활동하였다.

임기는 2년이었으며 6명 중 1명은 연장하였다.

초기에는 미국의 대외침략의 첩병이며 CIA의 스파이라는 비난도 받았고 거부하는 나라도 많았으나 점차 궤도에 올라 케네디대통령의 최대 업적중의 하나로 평가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1966년 9월 14일 양국간에 합의한 협정에 의하여 미국평화봉사단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주로 영어교육과 보건사업 특히 당시 국민보건상 가장 큰 문제였던 결핵관리사업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임지로 배치되기전 총 15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현지의 문화, 풍습 및 언어를 익히고 사회경제적 상황도 파악하고 각자가 종사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

대부분이 농촌의 결핵요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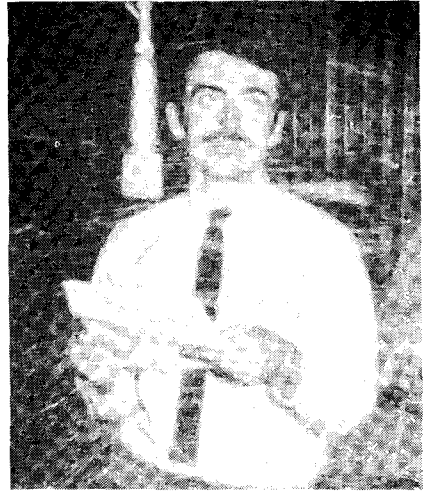
1967년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평화봉사단원은 1980년까지 3,200명이 이 땅을 다녀갔으며 주로 한국보건사업, 특히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1967년 처음으로 89명의 평화봉사단원이 면(面)과 군(郡)에 고루 배치되었다.

15주간의 교육과정중 일반정세, 언어, 풍습 등 일반교육과 BCG접종 및 객담검사 실습 등 실무교육이 시행되었으며 보건사회부와 평화봉사단 자문관이 마련한 평화봉사단원 업무지침이 시달되었다.

1970년에는 32명이 결핵관리에 종사하였는데 전라남도 담양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평화봉사단원은 12개면중 6개면에서 지역사회 환자발견 운동을 전개, 유증상자로부터 객담을 수집하고 군대 트럭을 빌려 엑스선 검사를 위해 보건소로 보내는 일을 하였다.

1971년에는 6개 도에서 26명이 근무하였는데 전남 담양군에서 근무한 John F. Carter는 가정방문하여 유증상자에게 객담수집과 엑스선검사를 위해 보건소가도록 권장하는 환자발견 운동에 참여하도록 인근면의 보건보조원을 동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보고에 의하면 6개월 동안 325명의 신환자를 발견하였으며 그 중 균양성 환자가 106명이었다.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발견은 장비가 훨씬 덜 들고 아직은 능률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짓고 타 보건소에서도 장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평화봉사단원이 배치된 충남과 전북에서 객



▲ "결핵없는 내일"을 작사 작곡한 미국 평화봉사단원 Gary Rector 그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했다

담검사만으로 실시하는 비슷한 환자발견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기도에 근무했던 Gary L. Hednck은 결핵요원들의 결핵지식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도(道)의 보건과장과 결핵관리의사를 도왔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보건보조원과 교육을 받지않은 면요원간의 결핵지식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잘 훈련된 보건소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며 모든 결핵요원들은 보건보조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도 단위로 1-2주간의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하고 보건소별로 월단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1명의 전자공학 전공자와 2명의 엑스선기사가 평화봉사단원으로 도착하였는

데 WHO 엑스선 기계학자인 C. W. Kroezen과의 긴밀한 유대아래 10월 중순경 도착하자마자 국립보건원과 지역 단위로 보건소 엑스선 기사들을 위해 엑스선 정비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결핵협회와 보건소를 순회하며 엑스선 장비의 점검과 수리를 실시하는 한편 결핵협회 김종훈(金鍾勳)기사를 지도하여 그 일을 맡도록 했다.

1972년에는 47명의 봉사단원들이 7개 도에서 근무하였으며 1980년까지 이들은 2년 교대로 보건소 결핵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한국처녀와 결혼하기도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개발도상국을 졸업하고 중진국에 진입하자 미국은 한국에서의 평화봉사단사업을 1980년까지 끝내고, 1981년 철수하였다. 그동안 희망에 따라 연기하는 단원도 있었지만 2년마다 교체되었으며 2년간의 한국 근무를 통하여 단원들은 근무지의 한국인 가정에 하숙하거나 방을 얻어 자취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관습 및 음식이 익숙해졌고 언어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한국 농촌에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의 젊은 남녀가 상주하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농촌 주민들은 호기심과 함께 단원들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적극 협조하였다.

단원중에는 근무 중 사귀어 한국처녀와 결혼한 사람도 여러명 있었으며 복무 완

료 후 한국에 눌러 앉아 취직하거나 자기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제1진으로 왔던 단원 중 음악을 좋아하는 몇몇 남녀 단원들은 2년동안 정들었던 한국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며 1969년 한국의 민요, 가요 및 자신들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한 노래와 연주곡들을 음반에 취입하기도 했다.

음반 제작은 당시 서울지부 사무국장장으로 일하던 필자가 주선하여 신세기 레코드주식회사에서 1,000매를 출판하였으며 판매 이익금을 결핵퇴치사업에 회사했다.

이 음반에는 사랑하는 마리아, 안개, 결핵없는 내일 등 모두 14곡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단원 Gary Rector가 직접 작사 작곡한 '결핵없는 내일'과 개사한 '고향이 어디랑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결핵없는 내일

나라의 힘이되는 국민의 건강 발전과 생산의 힘이여

내가 설마 하지말고 검진 받으면 결핵없는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내일

결핵이란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옮겨지는 무서운 병인데

자기도 몰래 환자된 사람 많으니 가래검사 엑스레이검사 둘 다 해야지

어른 아이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한 해에 한 번 틀림없이

무료검진 치료하는 보건소에 가서 자기 건강 자랑말고 확인해야지



▲ 1969년 미국 평화봉사단 제1진중 10명이 귀국직전 그들이 작사 작곡한 "결핵없는 내일"을 비롯 한국의 민요 등 14곡을 수록한 음반을 결핵협회 서울지부 김대규사무국장 주선으로 (주)신세기 레코드에서 출판했으며 이익금은 결핵사업에 희사했다

나라의 힘이 되는 국민의 건강 발전과 생
산의 힘이여
내가 설마 하지말고 검진 받으면 결핵없
는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내일

전라도랑께

고향이 어디랑께 전라도랑께
직업이 뭐랑께 선생이랑께
어째서 선생이 되었냥께랴우
학생이 늬어서 되었당께랴우

고향이 어디랑께 미국이랑께
직업이 뭐랑께 봉사단이랑께
봉사단이 한국에 어째 왔당가

광한루의 춘향이를 사랑하러 왔당께 사
랑하러 왔당께

그들은 마지막 곡 앞에서 또렷한 한국
말로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남겼다.

"2년동안 봉사하며 한국에 남긴 일보
다는 우리 자신들이 찬란한 한국의 문화
에 대하여 배운 점이 더욱 많은 것 같습
니다.

따뜻한 인정과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
어 주신 은혜는 일생 못 잊을 것입니다.
고향이란 정든 곳이 고향이죠." 卍

(착오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